

2002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딜레마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2002-7.4
3월 15일
92.15

'92 리우지구정상회의 10주년을 계기로 의제21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2002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2002 WSSD)가 8월말이면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100여 개국의 정상대표를 포함한 189개 유엔회원국, 국제기구 및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NGO대표, 언론보도진 등 6만여명이 참가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대표를 포함해 각계에서 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WSSD의 준비는 아태지역 등 5개 권역별 회의와 4차에 걸친 준비회의가 지난 5월말에 열렸던 발리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친 셈이다. 우리나라는 WSSD사무국이 권고한 바 있는 국가준비위원회의 업무를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난 10년 간의 의제21국가실천계획의 성과를 검토하는 한편 WSSD의 논의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책 검토 등 회의참가 준비를 하고 있다.

2002 WSSD가 목표하고 있는 과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 국가 정상의 실천의지를 담은 '정치적 선언문'과 그 실천계획으로서의 '행동계획'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의 자발적 공약인 '파트너쉽/이니셔티브' 등 3개 문건을 합의 채택하는 것이다. 행동계획의 주요 과제들은 빈곤문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천연자원 관리, 보건문제, 해양수산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이행수단으로서의 재원지원과 기술이전 등의 난제들이다.

WSSD의 마지막 준비회의인 발리에서의 장관급회의 결과에서 보면 WSSD의 당초의 목표인 리우에서 합의한 바 있는 '리우선언'과 '의제21'에 대한 실천전략 수립의 실현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10년전 리우회의가 직면했던 한계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어 WSSD성공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고 있다.

'97년도의 리우+5인 유엔환경특별총회를 위한 협상기구의 부위원장이었으며 영국의 유엔환경과개발위원회(UNED-UK)의 위원장인 데렉 오스본(Dereck Osborn)이 WSSD가 정치적 선언문조차 합의해내지 못했던 리우+5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물론 안되며 10년전 리우회의보다 후퇴해서도 안된다고 일찌감치 경고한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92 리우지구정상회의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세계의 국가정상들의 공감대를 공고히 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넓고 크게 제고시키고 '리우선언문'과 '의제21'을 통해서 국제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낸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아홉개 주요 행위자들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해 낸 것은 성과중의 성과이다.

그것은 지구환경문제는 국가정상들의 합의로 성취해 낼 수 있는 핵감축 문제와는 달리 지구인 개개인의 참여와 그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없이는 해결

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구환경은 리우지구정상회의 이후 10년간에도 개선이 아닌 악화일로로 길로 치닫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행수단과 추진일정에 대한 합의를 해내지 못한 데서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번 WSSD에 기대하는 바도 대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문제 등의 이행수단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의 표명과 합의이다. 이 문제가 제4차 준비회의에서 WSSD본회의로 이양된 것이다. 금번 WSSD가 이 숙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한 WSSD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누구나가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항의 합의도출은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국제정치, 경제, 사회구조 및 체제가 '남북간의 이해대립' 과 '각 국가간의 이해대립'이라는 장벽을 뛰어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이다.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이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며 딜레마이다.

2002 WSSD에서도 이 딜레마의 탈출구는 찾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찾지 못하고 또 10년을 지내도 되는 것인가. 많은 질문을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금번 WSSD 국가준비위원회의 실무에 관여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WSSD의 의제들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책이 모든 의안에 대해 여전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강대국으로서는 세계 10위권, 과학기술평가에서는 10위에, 인간개발지수에서는 140여개국 중 30위권에, 그러나 환경지수는 95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공헌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비단 WSSD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리는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 사회정의 및 환경보전의 통합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의제21의 행동강령이 국가정책과 연계되어 실천하는데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도 예외가 아니다. 다행인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중 90%가 이미 지방의제21을 수립했거나 수립중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것이다. 남은 과제는 우리 정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WSSD의 딜레마를 푸는 실마리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5mm

2002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딜레마

박영숙 한국환경정책연구소 소장

92 리우 지구정상회의의 10주년을 계기로 의제지의 성리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가능발전 실천
리듬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2002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2002 WSSD)
가 하와이에서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100여개국의 정상대표를 포함하여 189개 회원국,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NGO 대표, 언론보도진 등 6만여명이 참가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대표
를 포함하여 각계에서 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WSSD의 준비는 아대지역 등 5개 지역별 회의와 4회에 걸친 준비회의가 지난
5월말에 열렸던 발리 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WSSD 실무그룹이
준고한바 있는 국제준비위원회 업무를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관하며, 리우에서
그리고 실무그룹의 준비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의 의제지 국가발전 계획의 성리를 검토하는 한편
WSSD의 논의동향과 우리나라 대응책 검토를 위하여 정기 회의를 하고 있다.

2002 WSSD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국이 행동의 실천의지
를 담은 '정치적 의제'와 그 실천계획으로서의 '행동계획'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 공약인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등 3개 문건을 함께 채택할 수 있다. 행동계획의
주요리듬은 빈곤문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천연자원관리, 보건문제, 해양수산 문제,
에너지문제, 그리고 이행수단으로서의 재정지원과 기술지원 등의 논제들이다.

WSSD에 세계 각국 준비위원회 발리에 대한 장관급 회의 결과에서 보면 리우에서 합의한
바와는 '리우 의제'와 '의제지'에 대한 실천적 약속 수위에서는 WSSD의 강령의 뜻을
다행히 계승하고 보이기 않고 있다. 10년간의 리우 의제지 실천계획을 발리에서 리우 의제지
회기 못하는 것으로 미국의 WSSD 성리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97년도의 리우+5인 유엔환경특별총회를 위한 해산기구의 부의장장이었으며 영국의 유엔환경
개발위원회(UNED-UK)가 부의장인 데릭 오스본(Derek Osborn)이 WSSD가
정치적의제로서만 합의해 내지 못했던 리우+5의 실패를 대폭리 해서는 물론 알리며
10년간 리우 의제지 실천 후회 해서로 삼고자고 일러감치 경고한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92 리우지구정상회의가 50여개 나라에 대한 세계의 국가정상들의 공조력을 공표
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일깨워 크게 하고자하고 '리우 의제'와 '의제지'
를 통해서 국제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지구환경
보전회위한 인류가 주요 행거리들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해 나가는
성공의 열쇠이다.

그런데 지구환경문제도 국가정상들의 협의로 성취해 내는 것은 행감들 문제와는
다르다. 지적인 개개인의 참여와 그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없이도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구환경은 리우지구정상회의 이후 10년간으로 개시되어온 양심론의 길을 치닫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행수단과 추진전략에 대한 합의를 해내지 못해서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WSSD에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더욱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문제 등의 이행수단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제4차준비위원회에서 WSSD 분회기로 이행될 것이다.

중간 WSSD가 이 후제를 통하여 불충족한 WSSD는 노력이 필요한 민속 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의 지각한계가 대안상 제정되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누구나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사항의 협의로 충분이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국제법칙, 경제, 사회구조 및 제정 (소속자의 이해대립)과 '각국간의 이해대립'이라는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하나의 세계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지각한계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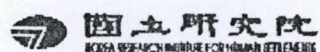
2002 WSSD에서 이 단계까지의 합의를 잘 지켜 불충족한 것 그리고 지키지 못하고 또
10년 후 지켜볼 의무가 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의 우리인 합의를 위하여 있다.

중간 WSSD 국제법칙에 대한 실행에 관하여는 먼저 안건 자체에 생각할 것은 WSSD
의 의제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응책이 여전히 어떻게 보호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기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개발도구로서는 세계 10위권, 과학기술 개발분야는 10위에 안착해 발전해나가는
140여개국 중 30위권에, 그러나 환경개발도구 95위. 최근 국제법칙에서의 공해조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평가받고 있다. 우리 생각대로 무엇이든 잘못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비단 WSSD의 안건만을 우리나라의 자각한계는 발전을 우리나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제법칙도 경제개발, 사회정의 및 환경보전의 통합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의제 1의 행동강령이 국제법칙과 연대적인 실행계획에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국제적인 것은 개발도상국 추진위원회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이 서로하고 있는 정책의 긴박한스 국제법칙이 중앙정책 추진
이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지각한계와 발전에 달레미를 주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인 본다.

FAX

수 신	박영숙 소장님께		
전화번호	02-571-5809	팩스번호	02-576-2223
발신매수	표지포함 3 매	발신날짜	2002. 6. 3.
제 목	원고청탁서		
발 신 처	국토연구원 정보자료팀 담당자 : 한여정		
	전화번호	031-380-0439	팩스번호 031-380-0474
내 용			



국토연구원
KRIHS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원 고 청 탁 서

집필자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Tel 02-571-5809 Fax 02-576-2223
의뢰자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정보자료팀장	Tel 031-380-0428 Fax 031-380-0474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국토」의 2002년 8월호 특집기획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와 WSSD(가제)' 원고를 청탁하고자 합니다. 이 기획은 Rio 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의 주요의제와 진행중인 행동계획을 분석하고, WSSD의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주요 분야별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소장님께 청탁드리는 원고는 "국토시론"으로써, 특집의 각 부문별 원고구성(첨부)을 참고하셔서 집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게재서명 : 「국토」 8월호

[2] 원고내용 : 국토시론

(특집구성 세부항목 및 필자는 첨부합니다)

[3] 원 고 량 : 200자 원고지 12-13매 내외

[4] 원고마감 : 2002년 6월 28일(금) — 7.8-13시

[5] 보내는 방법 :

- 원고송부시 제목을 확장해 주십시오.
- 원고는 e-mail: yjhan@krihs.re.kr 로 보내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를 꼭 기입해 주십시오.

[6] 원 고 료 : 10만 원

[7] 참 조 :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특집 원고의 경우 국토연구원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 편집담당자의 교정작업이 이뤄진 원고는 필자의 최종수정을 거쳐 인쇄됩니다.

[8] 문 의 : 한여정 (Tel 031-380-0439 / Fax 031-380-0474)

국토연구원 정보자료팀장 사공호상

〈첨부〉 「국토」 2002년 8월호 특집 기획안

특집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와 WSSD(가제)

▪ 국토시론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리우+10(2)
위제리 리 지속가능발전
국토관리와 WSSD
리우

1. Rio+10, WSSD의 주요의제와 과제

(고재영 환경부 국제협력관 국장)

2. 지속가능발전의 최대 걸림돌: 빈곤퇴치

(박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 국제협력팀장)

3.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의 장려

(김재욱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4.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리

(김선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5. 지속가능발전과 세계화 대응

(정희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필자의 논지를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라는 의도에서 구체적인 방향이나
의외내용 없이 주제만 알려드립니다.

*각 원고별 제목은 필자가 정해주십시오.